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 2022년 5월 11일(수) 총 2매	 환경특별시 인천		
담당 부서 보건환경 연구원	담당자 • 환경생태과장 김현주 ☎440-5591 • 담당자 이희수 ☎440-5598			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인천시, 레지오넬라균 검사 한걸음 빠르게 나선다

- 코로나19 일상회복 정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선제 검사 실시 -

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가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.

대형 건물의 냉각탑수, 냉·온수 급수시설 및 목욕탕, 수영장 등에서 증식하는 레지오넬라균이 비말 형태로 호흡기를 감염시켜 발생하는 ‘레지오넬라증’은 특히 온도가 높고 습한 환경에서 잘 번식하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면 더욱 주의해야 하는 질환이다.

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올해는 5월부터 7월에 특히 기온이 상승하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고,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예년에 비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많아 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위생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.

따라서 연구원은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280개소를 대상으로 예년보다

한 달 빠른 5월부터 급수시설 및 냉각탑수의 레지오넬라균 증식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.

작년 인천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1,365건의 검사 중 102건(검출률 7.5%)에서 균이 검출됐고, 19명(전국 399명)의 환자가 발생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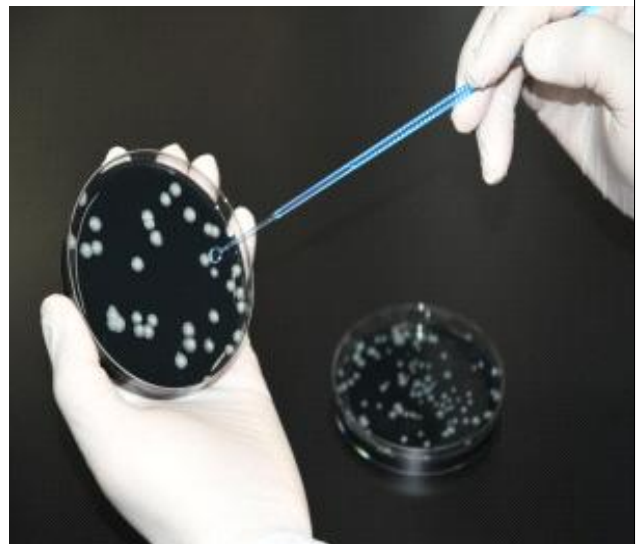
특히 올해는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우선순위인 요양병원, 노인복지시설과 더불어 코로나 일시휴업시설, 작년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 시설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사할 예정이다.

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어렵게 맞이한 안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우선적으로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시민의 호흡기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.” 고 말했다.

관련사진



채취된 시료를 배지에 도말



레지오넬라균 배양 및 분리동정 시험